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부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모형 개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odels for Housewives' Educational Program in the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정복지학과
부 교수 송혜림**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Univ. of Ulsan
Associate Professor : Song, Hyerim

〈 목 차 〉

- | | |
|-------------------------------------|--------------------------|
| I. 서론 : 연구목표와 연구과제 | V. 유관기관의 주부교육 프로그램 제공 실태 |
| II.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 VI.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부교육프로그램 |
| III.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본 주부연구와 주부교육프로그램 | VII. 제언 |
| IV. 주부교육프로그램 선행연구 고찰과 사례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basic models of the housewives' educational program for the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 For this purpose the role & function of the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 and the cases about the housewives' educational program of related institutions were analysed. Based on of this materials this study proposed 2 types of program model : 1. the balance of individual-family-society parts oriented model, and 2. the healthy families CEO oriented model. And the strategies for the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each model were suggested.

Key Words : 건강가정기본법(Act for the healthy families), 건강가정지원센터(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 주부교육프로그램(Housewives' educational program)

* 본 연구는 2004년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수정·재구성한 논문임.

** 주저자, 교신저자: 송혜림(sangwoosong@hanmail.net)

I. 서론 : 연구목표와 연구과제

통합적 가정정책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범가정학적 차원에서 추구해 오던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 2월 제정되었고, 이제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통합적 가정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족, 가정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이를 반영한 정책적·제도적 틀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이론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토대를 마련하는 관련 연구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2005년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원년을 맞이하여, 각 학문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연구와 교육의 패러다임을 모색하여, '건강가정'으로 응집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그동안 가정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접근의 한계와 현재 심각해져가고 있는 가족문제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 다양한 요소와 현상을 배경으로 하여, 가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정정책을 분석해보면 크게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일단 가족에게 많은 것을 부담지우고, 문제가 발생한 사후에 개입하는 방식을 취해옴으로써 가족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다. 둘째, 기존에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 개별 가족원에 대한 복지적 접근은 있으나 가정생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결여됨으로써 문제해결의 한계에 직면해 왔다. 셋째, 예방과 건강성 증진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가족문제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본질적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해 왔다 (송혜림, 2004a).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가족문제의 해결과 치료 뿐 아니라 문제의 사전 예방,

건강성 증진 등을 함께 포괄하면서, 가정의 자립과 국가적 지원의 균형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맥락 하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즉, 지금까지 가정은 구성원의 복지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최후의 안식처'이며, 특별히 국가사회가 관심 두지 않아도 '잘 기능하는 혹은 잘 기능해야 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취급되어 왔고, 사회 전체의 발전논리에 매몰되어 가족원의 부양에 대한 요구는 거의 가정의 몫이었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을 계기로 이제 국가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분명하며, 가정문제해결과 예방을 위한 공사의 노력, 가정부담의 사회적 분담 등이 가능해 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은 다양한 통로와 방안을 통해 가정의 기능을 분담하고 협력함으로써, 가정의 과부하를 감소시켜 주며, 가정의 자립도가 증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기영, 200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가정'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토대가 마련됨과 동시에, 협소한 복지의 이념을 뛰어넘어 평화, 행복, 삶의 질, 건강, 자율성, 주체성, 양성평등과 민주성, 공동체성, 나눔과 참여, 시민의식 등 다양한 이념과 지향성을 포괄하여 개인-가정-사회의 균형을 취하며,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효과적인 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지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 역시 가정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분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자원연계 및 활용을 통한 가정기능강화, 공동체자원의 활용 등 다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담, 교육, 정보제공, 지역사회와 가정 간 자원 연계 및 활용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장치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치근거에서 나타난 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과 지방(시도/시군구)에 각각 설치되어 가정문제예방·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가족문화운동의 전개·정보와 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달체계임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기영 외, 2004).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가가 건강가정기본법의 성공적 시행과 함께 가는 중요한 이슈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2004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도 본사업을 진행 중인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기 위한 전략 모색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된 선행연구¹⁾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업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전문 인력인 건강가정사 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며, 제한된 자원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주도하고 실행하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수행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사업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며,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업무분담체계, 운영의 세부사항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공적 전달체계·민간기관 등과의 연계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역할을 무엇이며 어떤 업무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송혜림, 2004b).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가지 영역의 과제 중 건강가정사업에 초점을 두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지역사회에서 대주민사업을 펼치고 있는 여타의 시설, 기관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일단은 주부를 가장 일차적인 이용자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주부교육프로그램에 주목하고자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된 대상이 '주부' 라는 맥락을 고려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부교육프로그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초기정착과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건강가정사업은 건강가정 형성·유지를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문화운동, 정보제공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 프로그램은 가정문제의 해결과 치료뿐 아니라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성을 더욱 증진시키는 방향성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상담'을 통해 사후적 문제해결에 집중해 온 지역사회 다른 기관들과 차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부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 송혜림(2004b)의 연구 그리고 한국가정관리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센터에서 제공하는 건강가정사업과 프로그램,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 그리고 제한된 자원으로 센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운영이라는 세가지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특성을 부각시키면서도, 우선적인 이용자로 고려할 수 있는 주부집단을 응집시키고 주부의 참여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가정기본법,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이해를 명료화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주부교육프로그램은 광의의 '주부연구' 라는 맥락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주부연구의 쟁점을 정리하여 주부교육프로그램의 큰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주부교육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주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요구도 등을 정리한다.

넷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부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다른 기관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부교육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 등을 분석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차별적이고도 독자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관기관의 주부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부교육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주부연구 및 주부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주부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며, 따라서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사례분석 이라고 할 수 있다.

II.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학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적용하고 지역사회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현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되어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업무로 파악한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 예방 사업, 상담과 치료사업, 프로그램 개발사업, 가족문화운동사업, 정보 및 자료제공사업 등을 하는 시설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연구(송혜림·장진경, 2004)에서는 중앙과 시·도 그리고 시·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각 차별적인 역할에 따라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건강가정사업을 실천할 최종 터미널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가정기본법 작성과 홍보, 실천 전략 마련에 참여해 왔던 건강가정 실무기획단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 관련 정책개발이나 연구, 프로그램 기획, 정보 제공, DB화 등의 업무에 보다 주력하는 반면 시·도 그리고 시·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고 사업을 실천하며, 가족실태조사나 가정봉사원 파견 등 구체적인 업무에 주력하는 것으로 큰 틀을 마련하고 있다 (건강가정 실무기획팀, 2004).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가정기능강화·가정의 잠재력 개발·가족공동체문화 조성·다양한 가정의 욕구 충족·가정과 사회의 통합을 지향하여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존의 관련 시설들과의 차별성은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정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설립되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관련 기관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거점기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각 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개별 기관의 특성을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능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기영 외, 2004).

법규정에 따르면 중앙, 시·도, 시·군·구 등 삼 개 단위로 설치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총괄적으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치료,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 가정 관련 정보와 자료의 제공 등을 공히 담당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각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1.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총괄기획, 조정, 지원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책개발 및 제안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의 2005년도 시행과 관련되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방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되고 대주민 사업을 효과적으

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큰 비중을 둘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활용할 수 있는 건강가정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과 수급관리, 건강가정사업 종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정보제공, 네트워킹,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등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가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 통합적 가정정책에 대한 국가의 실천의지를 표현한다는 맥락을 고려할 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업의 총괄기획과 연구·정책개발,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 공적·민간 전달체계와의 네트워킹 구축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통합적 가정정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역할과 기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가정업무의 통합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업수행의 틀을 구성하며 실천해 나가는 과정은 곧 통합적 가정정책의 실현과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통합적 가정정책 추진의 틀을 제공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가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에 명시된 바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운동, 정보 제공 등과 같은 사업 외에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도와 시·군·구 등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며, 동일한 사업영역이라 하더라도 차원을 달리하여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예산, 인력 등의 제한성으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업, 업무를 전담하

여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센터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시/도와 시/군/군 등 지역에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1차적인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기영 외, 2004).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최종적인 터미널로서, 대주민 교육/상담/문화사업 및 정보제공 등에 주력한다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를 위한 지원 및 평가,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보급 등에 주력한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계획안을 보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반영하여, 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첫째,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로서, 이 영역에는 위기 가정,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종합 상담 그리고 가정해체·이혼 예방 및 이혼 가정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이 포함된다.

둘째, 건강가정의 형성·유지 지원으로서, 결혼준비, 부부관계, 부모역할, 가족윤리, 가정생활 등 교육 등, 그리고 가사, 육아, 노인부양, 산후조리, 간병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셋째,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로서, 가족여가,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의식주생활, 소비생활, 지역사회공동체활동, 건전 가정의례 등 생활문화 개발·보급 사업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특히 정부의 지방분권 개혁 계획에 부응하여 각 지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민 참여의 중심점이 되며, 지방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여 지역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은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를 목표로, 주민과 함께 하는 정부·아래로부터 지속적인 자기혁신이 가능한 정부·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자율과 책임 및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T/F팀, 2003). 이러한 지방분권의 추세를 지방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결시켜 볼 때 주민참여의 중심점으로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방문화 창출과 지역가치 증대의 중심점이 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건강문화 정착과 확산을 주도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다 (송혜림, 2004c).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주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일단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주부를 일차적인 타겟으로 하여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주부교육프로그램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 형성·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라는 사업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자발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으나, 중앙센터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주부교육프로그램을 전달받아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대주민 사업의 일환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본 주부연구와 주부교육프로그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주부'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맥락은, 아

마도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가정생활 자체가 주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의 정착과 확산에서 주부집단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부분이 크다는 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부집단을 응집시키고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가족자원경영학에서 주부연구가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자원경영학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부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제시하기에 보다 수월한 입지를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주부연구' 라는 큰 틀에서 주부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주부의 정체감과 일상생활 그리고 생활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등 일련의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상술한 바 가정생활에서 주부의 역할과 비중이 크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일 뿐, 그것이 바람직하다거나 긍정적이라는 평가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전반적인 가정경영과 관련되어 주부의 기여도가 매우 컸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가족원이나 특히 남편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다는 사실은 연구결과 뿐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경험도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다. 양성평등과 민주성이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시점에도, 게다가 여성의 취업이 기혼과 미혼을 가리지 않고 증가하는 이 시점에도 이러한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주부가 처한 조건을 살펴 보면, 그들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열악한 조건이라는 취약점도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강점도, 사실은 바로 이러한 '가정예의 몰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일련의 주부연구를 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담론과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형성이 한편으로는 발전적 측면이 있으면서도, 또 한 편으로는 왜곡된 주부상을 고정시키는 부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구혜령·조영희, 2001 ; 송혜림, 2002 ; 이기영 외, 2003a ; 이기영 외, 2003b ; 김선미, 2004), 그것이 긍정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 특히 주부를 사회의 한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공적인 장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를 심도깊게 진행시키며 활성화 한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부는 소위 '아줌마 유머'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비하되는 측면이 강하고, 가정에서의 권력과 힘을 공적인 장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경험과 정체성 유지 위한 대응양식을 주제로 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전업주부의 일상생활 경험을 자녀양육과 교육, 가사노동 그리고 가족관계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정예의 고립, '자기자신'이 아닌 자녀나 남편을 통한 성취감,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등이 긍정적 정체감 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선미, 2004).

그런데 최근 들어 주부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취업 및 기타 사회적 활동의 경험이 전무하지 아니하며, 그들 구매력이 상승되어 시장에서의 권력도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주부들의 모임, 공동체도 전례 없이 많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집단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사회교육, 문화센터, 여성회관 등 주부를 가정 밖으로 끌어 내는 요인도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자녀화를 중심으로 주부의 생활시간 배분도 세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어, 가정살림 이외의 활동에 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바

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에 있어 주부가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는 측면과 연결되며, 특히 다른 기관과 시설들이 그러하듯이 그 운영시간을 고려할 때, 전업주부들의 참여가 주를 이룰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동안 가족자원경영학 연구자들은 가족자원 경영연구의 전문성과 통합성을 함께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그동안 가족자원경영학이 연구대상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실천적 연구의 축적에 있어 한계에 직면해 왔다는 점, 그래서 '주부'라는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의 현상을 분석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조망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구혜령·조영희, 2001), 최근 다양한 관점과 틀로 주부연구를 해 오고 있다. 즉 초기의 주부 관련 연구는 주부가 가정관리의 주체라는 현실을 인식하여, 주부의 가정관리 전략, 가정생활만족도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주부의 시간사용실태, 시간관리전략, 재무관리행동, 역할수행, 가사노동태도 등의 주제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 와서는 주부연구를 생활문화·국가·제도와 정책 등과 접목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주부연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 온 가족자원경영학 연구자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주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IV. 주부교육프로그램 선행연구 고찰과 사례

1. 주부교육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 요구도

이제까지 주부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가족관계 개선이나 자녀교육 등 주부가 대상

이 되지만 실상은 가정생활의 어떤 일정한 영역에서의 기술향상이나 기능개선으로 연결된 내용이 있는 한편, 주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의식변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시간관리 같은 주제는 주부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나, 또한 동시에 가정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주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일단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전업주부의 경우, 사회적 정체감 찾거나 자신의 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이 중요한 주제인 반면, 취업주부의 경우 이중노동부담 문제의 해결 일-가족 조화 등이 보다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주부 대상 프로그램들은 주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많은데, 대부분 주부교육을 제공하는 시설과 기관의 운영시간 자체가 취업주부가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주부교육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많은 교육프로그램들이 상업기관의 이윤추구적 목표추구로 인하여 주부들이 요구하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복지관이나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회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 중심의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기능중심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여성사회교육의 실태를 보면 상당히 교양적인 내용에 치중하는 경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김양희 외, 2002).

여기에서, 주부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먼저 주부교육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교육 대상자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부교육과 여성교육, 여성사회교육 등을 구별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여성교육의 대상자인 여성은 한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자질 향상이나 자기충족, 직업훈련 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적 참여에 초점을 두

고 있다면, 주부교육의 대상자인 주부는 개인적·가정적·사회적 차원에서, 한 개인이자 여성으로서의 주부 자신, 가정 내 역할 담당자 그리고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한다고 하여, 주부교육을 일반적인 여성사회교육과 구분하고 있다 (이기영 외, 2003a).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주부교육에 대하여 주부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교육체계로 접근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주부’는 한 개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 뿐 아니라 가정생활과의 맥락에서 정체감을 함께 갖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차원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교육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균형을 취할 수 있는 내용과 운영의 틀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주부교육을 이해하고자 한다.

한편, 학문분야의 차원에서 보면,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지속해 온 가정관리학 분야에서는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과 가족원의 복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교육과 연구의 실천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부 주제로는 부부관계 개선, 부모자녀관계 향상, 시간관리, 가계재무관리, 가정폭력 등이 있으며 (이승미, 1999), 한 편으로는 가정생활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가족관계 개선, 가정생활개선, 재산증식 및 조세관련, 소비생활개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노후생활 개선, 건강관리, 주생활관리,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가정생활 관련 법률상식, 가정소득증대, 자원봉사 프로그램, 생활문화 육성 등으로 범주화 하기도 한다 (임정빈 외, 1997).

주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한 연구(이기영 외, 2003b)에서 주부교육은 주부의 정체감을 세가지 차원 즉 개인-가족-사회의 차원을 고려하여 균형을 취해야 하며, 따라서 교

육목표와 범주에서도 취미, 교양이나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뿐 아니라 가정경영능력의 증진, 가족관계 향상, 가정자원의 합리적 관리, 긍정적인 주부정체감 형성, 가정경영경험의 사회화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주부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아실현, 가정적 차원에서의 능력 증진과 사회적 적용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참여 등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주부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동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아 계발과 발전, 여가활용과 취미생활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그 밖에 건강관리, 전문적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 등의 순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주부들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인지향 프로그램, 가정지향 프로그램, 사회지향 프로그램으로 영역화 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가정지향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사회지향 프로그램, 개인지향 프로그램의 순으로 나왔다 (이기영 외, 2003a). 또한 주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뿐 아니라 성격, 시설, 제공방법, 활성화방안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요구도를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는 스포츠·건강 그리고 영양·건강관리 프로그램 대한 요구도가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등의 시사, 공동체생활문화 만들기, 소비생활 개선 등에 대한 요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 외, 2003b).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와 (김양희 외, 2002), 대상자의 연령과 학력, 지역, 프로그램 참여 동기 등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장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운영자, 전문가 면접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의식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 영역에 대해 더 선호가 높아서, 가정경영 영역에서는 꼼꼼히 기록하기/정리 잘하기/계획하기 등 그리고 시간관리와 재무관리 쪽 요구가 높기 때문에 주부교육의 목표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일단 주부들의 요구가 높은 내용과 요구도가 높지 않으나 필요한 내용(의식변화, 사회적 지향성 등)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이기영 외, 2003c).

2. 주부교육프로그램 개발 사례

최근 가정학 및 가족자원경영학 영역을 중심으로 개발된 주부교육프로그램 사례를 검토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부교육프로그램의 틀을 구성할 때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정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의 주부 교육 프로그램 사례

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광의의 가정복지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놓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정생활주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혼기 교육프로그램 : 결혼 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프로그램, 부모기 전이기의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맞벌이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젊은 며느리를 위한 고부관계 향상 교육프로그램, 부부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부부대화법 프로그램,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등.

(2) 아동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교육프

로그램 : 부모교육 프로그램, 정서지능향상교육프로그램, 놀이를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3)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자녀와 부모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를 위한 세대간 이해증진프로그램, 재혼준비교육프로그램,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4) 중년기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부부갈등해결 교육 프로그램, 성인자녀를 위한 노인부양 교육 프로그램, 중년며느리를 위한 고부관계 향상 교육 프로그램, 자기인식 향상을 통한 부부친밀감 증진 프로그램

(5) 노년기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 노년기 준비 교육 프로그램, 노년기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노년기 적응프로그램 등

위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은 주로 가족관계 증진이라는 목표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전반적인 가정경영이나 구체적으로는 시간관리, 재무관리, 가사노동관리 그리고 주부 역할과 정체감 형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주부 등을 다루는 내용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부 교육프로그램 사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내용에 따르면, 크게 주민자치·지역복지·문화여가·주민학습 및 교육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영역화할 때, 주민자치 영역에서는 주부 물가감시단 운영, 주부시정모니터제 운영 등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지역복지 영역에 포함된 프로그램 중, 건강한 가족 살기 좋은 이웃 만들기, 가족생활설계 프로그램(밝은 미래를 준비

<표 1> 주부대학 프로그램

프로그램주제	주부대학 : 주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부의 정체성 찾기 - 아줌마의 힘 - 주부가 하는 일의 가치 찾기 - 가정경영을 위한 주부의 시테크전략 - 부업에 앉아 세계를 보자
프로그램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타의 다른 교육프로그램(부모교육, 생활설계, 가족간 대화 등)을 연계해 한 학기 혹은 1년간의 주부대학프로그램으로 확장운영 가능 - 아파트, 거주지역 내의 부녀회와 연계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민관협력체계 가능 - 학교시설, 아파트관리사무실 등의 공간활용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부녀회활동을 보다 조직화 - 주부들의 의식향상에 기여, 지역사회발전에 토대가 됨

<표 2>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주제	가족간 대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랑의 말 한마디가 언 가슴을 녹여요
프로그램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간 의사소통의 의미 - 칭찬게임 - 네 탓이 아니라 내 탓 - 대화로 나누는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부대학의 일부로 구성할 수 있음 - 건강가정 캠페인으로 연계 - 학부모, 부녀회 등의 구성원에게 제공 가능 - 주민자치센터는 시설, 공간 제공/강사pool 이용 혹은 위탁 - 강사진 : 가정복지사, 가족상담사, 가정학 전공교수 - 대상 : 주부, 부부, 가족, 예비부부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해체, 가족붕괴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에 대한 관심 유도 - 가족갈등을 예방하고 화목한 가족관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생활에 유용

해요)은 가정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채택된 프로그램인데, 주부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참여대상자는 주로 주부일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여가 영역에도 특별히 주부를 대상으

로 한 프로그램보다는 일반인 중심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데, 주민교육/학습 프로그램 영역은 가정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서로 믿고 존중해요), 주부대학(주부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주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가족간의 대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표 3>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제	행복한 가정생활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주말 보내기 - 추억의 바캉스 보내기 - 과외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 - 건전한 이성관계를 위한 교육 - 알뜰한 생활교실 - 금주·금연교실 - 가족봉사교실
프로그램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지역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와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 - 연령계층별로 구분한 교실 운영 - 주부, 어린이, 아빠, 청소년, 노인층 등을 분류해서 가정생활과 관련된 주제별 교양교육을 제시하는 가정교육교실 운영 - 지역사회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교육을 통해 가정문제 상담체계 운영

(사랑의 말 한마디가 언 가슴을 녹여요), 지혜로운(행복한) 가정생활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경기도개발연구원, 2002).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가정학자들이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해 오던 프로그램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유관기관들의 주부교육 프로그램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 제시했듯이, 기존의 다른 기관들이 제공하지 못하며, 가정학의 전문성이 전제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 개발할 여지가 클 것이다.

이 중 주부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개발연구원, 2002 재인용)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가정복지특별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자에게 가정복지사에 대한 홍보와 동시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구성하였는데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자료집, 2003), 프로그램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건전한 가정 우리가 가꾸어요, 대화로 나누는 건강한 가족문화,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눈높이 부모교육, 주부의 자아찾기, 실버시대의 주인공은 나, 부자되세요, 나와 환경을 위한 바람직한 소비행동, 내게 맞는 시테크 전략, 나와 가족

<표 4> 주민자치센터의 주부교육프로그램 사례

프로그램 제목	주부의 자아찾기
프로그램 개요	주부역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부의 힘을 모아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움
프로그램 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부는 누구인가? : 주부도 어엿한 직업/돈버는 주부 - 나는 전문 가정경영인 : 우리 가정의 목표 세우기/목표달성을 위한 가정살림 - 부업에 앉아 세계를 보자 : 가정살림,사회살림/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전략 - 주부 연대하기, 힘 모으기 : 주부들의 힘을 하나로/주부, 자신을 사랑하자

인용 : 대한가정학회 가정복지특별위원회(2003)

의 건강만들기, 우리집 살기 좋게 꾸미기, 더불어 품위있게 살아요,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결혼준비.

이러한 내용은 가정학의 전반적인 영역을 고루 반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주부를 대상으로 한 '주부의 자아찾기'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03/2004년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건강가정 지원사업에서 활용된 주부교육프로그램 사례

2년에 걸쳐 진행된 주부교육프로그램은 우리 가정, 더욱 건강하게(2003) 그리고 건강한 가정 뿌리내리기(2004)를 주제로 한 것이다. 2003년도 교육내용은 우리 가족의 건강성 지수·건강한 대화 나누기·가족갈등, 대화로 풀어요, 성공하는 가족의 가정경영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도 교육내용은 우리 가족 대화 2% 부족할 때, 엄마와 자녀의 성격 궁합, 성공하는 가정의 시간관리전략과 생애설계, 웰빙시대의 식생활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 주부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제가 가정생활의 일부 영역인 가족관계, 식생활, 부모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정경영의 전반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주부의 자아정체감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몇가지 논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가정경영교육프로그램과 연결되는 이유는 대부분 주부가 가정경영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가정의 이념과 지향성을 고려할 때, 가정경영의 주체는 가족원 모두가 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주부교육프로그램과 다소 상이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부를 가정경영CEO라고 규정할 때, 주부만이 가정살림의 주체인 것으로 규정하는(왜곡된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했던) 것이 고정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또한 실제적으로 가정살림의 주된 책임을 주부가 갖기 때문에, 합리적 가정경영이나 가족관계 개선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적용할 때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전가족원이 주체가 되는 가정생활을 맥락으로 하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틀과 패러다임을 어떻게 규정하고 마련해 나갈 것인가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가정학 분야에서 개발한 주부 교육 프로그램은 주부의 의식변화를 목표로 한 추상적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부의 요구를 보면 또한 세부적이고도 기술적인 내용, 실제 가정

<표 5>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사업 - 주부교육프로그램 사례

프로그램 주제	성공하는 가족의 가정경영전략
프로그램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 : 합리성, 효과성, 건강성, 아름다운 가족문화, 따로 또 함께, 철학이 있는 주제적인 삶, 나/가정/사회에 대한 관심의 조화 - 가정경영 - 주부와 가정경영 : 주부, 누구인가?/주부, 할 만한가?/주부가 하는 일, 평가는 어떤가?/성공하는 주부 - 성공하는 가족의 가정경영전략 : 목표와 생활양식에 부합되는 가정경영/함께 하는 가사노동/잘 정한 우선순위/균형된 생활시간/멀리 보는 생활설계

인용 : 서울시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사업 자료집(2003)

경영에 활용 가능한 내용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관철시키는가가 중요하다. 즉 기존의 유관기관에서 하는 바와 같이 취미·교양·기술 중심의 프로그램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부의 의식, 가정운영에서의 철학, 사회지향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프로그램화 할 것인가, 동시에 기술적 내용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자원관리 영역에서는 시간관리, 재무관리, 가계부 기록, 가족행사계획, 계획의 실행을 위한 체계적 도구 등을 개발한다면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소지가 크다.

셋째, 현장에서 주부교육 프로그램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체계들이 대중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흥미를 유인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검사지, 체크리스트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강의기술, 시청각자료의 활용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V. 유관기관의 주부교육 프로그램 제공 실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은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별로 독자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이다. 즉 그 지역에 어떤 기관과 시설들이 있으며, 제공하는 사업,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그 효과성은 어떠한가, 한계는 무엇인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다 (송혜림, 2004b ; 송혜림/장진경, 2004).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독자적인 사

업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부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다른 기관들의 주부교육 프로그램 제공 실태를 파악하여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기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부를 포함하여 여성(사회)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다양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데, 여성사회교육 전담기관, 주교육 대상이 여성인 사회교육기관, 기타 여성이 참여하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해 놓은 경우가 있다. 전담기관에는 여성회관, 부녀복지관, 농협 주부대학,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포함되며, 주교육 대상이 여성인 사회교육기관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구민회관, 신문사·방송사·백화점·종교단체의 문화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여성단체, 일반학원이 포함된다. 기타 교육기관에는 기업체 연수원, 국공립 연수원, 정부투자기관 연수원이 있다 (김양희 외, 2002 ; 김재인, 1995).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전담평생교육기관(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단체, 농협 주부대학)과 일반 평생교육기관(대학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복지관, 지자체 시설, 공공 인정 직업 훈련기관)로 구분되고 있다 (박성정 외, 200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사회교육기관 중, 여성사회교육 전담기관의 한 사례로 여성발전센터를, 주교육 대상이 여성인 사회교육기관의 한 사례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공적 전달체계와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최근에 각 동사무소마다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송혜림·장진경, 2004),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설 및 기관의 프로그램은 명

확히 주부교육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제공 되는 것은 아니며, 보편적으로는 여성사회교육 이라는 맥락에서 개발·제공하는 프로그램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주된 이용자가 주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부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유용한 내용과 틀을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여성사회교육 전달기관 사례 : 여성발전센터의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능력 개발, 경제적 자립 등을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준비교육, 취미·교양교육, 취업상담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프로그램의 주된 타깃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용자 중 많은 비율이 주부이다.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을 사례로 살펴보면 (이하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인용), 전문기술교육/일반기술교육/생활문화교실/수영교실/헬스교실/기타교실 등으로 구분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중 상담실을 운영하여 직업적성지도, 취업·가족·자녀·여성문제 등을 상담하고 취업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여성학, 여성건강강좌, 현장학습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문화·창업 분야에서는 문화해설사, 디지털영상제작, 규방공예, 간판·인테리어 프로그램이 있고, 외국어 교실, 요리·제빵실, 생활의식향상(부모역할교육, 구연동화, 직장인매너&화술), 미술·공예(서예, 수채화, 동양화, 비즈공예), 건강·스포츠 그리고 IT 전문교육을 통한 취업 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내용이 취업 준비 그리고 취미·교양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취업·가족·자녀·여성문제에 대한 상담, 여성학,

부모역할교육과 같은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여성발전센터가 지향하는 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아동복지 사업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인용).

여성발전센터의 관점과 주된 사업의 목표가 가정에 있는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특히 취업교육을 통해 직장인으로서의 양성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바, 주부교육에서는 주부 개인-가정-사회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차원을 고려한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주부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여성발전센터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내용을 좀 더 확대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여성, 주부들의 요구와 이용동기에 따라 프로그램도 차별화되어야 하겠지만, 그 시설이나 인력의 규모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부의 취업교육은 지역사회 여성발전센터나 여성교실, 창업교실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독자적인 사업으로는 가정생활 개선, 가정경영의 능력 증진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정경영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화시켜 자원봉사나 취업활동으로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면 지역사회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주교육대상이 여성인 사회교육기관 사례 : 종합사회복지관의 여성교육 프로그램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사업내용에 있어서 건

강가정지원센터와 중복되는 영역이 있다. 대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프로그램을 가족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 사회교육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복지관의 상황이나 지역조건에 따라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영역 중에서 주부의 이용과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회교육 그리고 가족복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몇몇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사례(서울시 성북구 정릉종합복지관, 길음종합복지관 등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주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 후원자, 주민교양강좌 그리고 봉사단 등이 있으며, 이 중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주민교양강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복지 사업으로 주민교양교육 프로그램에 주부동아리 형성이 있는데, 그 내용은 한국무용·교양강좌·칼라믹스인데(성북구 정릉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이러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관에서의 주부교육프로그램은 그 범주와 내용에 있어 매우 제한된 것을 알 수 있다. 성북구 길음종합복지관의 경우 가족사업 영역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그 목표는 건강하고 유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세부적인 사업프로그램은 아동복지, 가정복지, 청소년복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가정복지의 경우 성인 여성의 자기개발, 취미,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기능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서는 성인여성사업으로 에어로빅, 생활체조, 노래교실이 있으며, 직업훈련사업으로 성인컴퓨터, 자격증대비반이 있어, 역시 주부 대상 프로그램의 범주와 내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성북구 길음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다른 지역의 사례로서,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가정복지사업영역에서 주부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부녀자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인데, 그 내용은 취미요리교실과 스포츠댄스로 되어 있어(광주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부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내년도부터 각 지역에 설치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 정립에 있어, 이미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의 차별성 모색이 큰 관건으로 지적되는 바(송혜림·장진경, 200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고유한 사업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부교육 프로그램은 그러한 맥락에서 매우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주부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여가, 건강, 스포츠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기술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바, 주부교육의 내실있는 틀을 개발하고 내용을 구성하여야 하는가는 매우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3. 공적 전달체계 사례 : 주민자치센터의 여성 교육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의 여유허공간에 설치되는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이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002년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개발연구원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내용을 보건데, 상당히 취미·교양·기술학습 영역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 내부적으로도 주민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 지역시설 및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성,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을 향후과제로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의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경기도개발연구원, 2002). 주민자치센터는 그 운영시간의 제한 때문에 취업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주된 대상자가 전업주부, 노인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본다면,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취미·교양 위주의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주부 대상의 프로그램을 다양한 내용과 운영방안을 고려해 제시할 수 있으며, 공간이나 장비, 인력 등을 주민자치센터와 공유하며 공동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의 대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유관기관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차원에서는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취미·교양 교육 그리고 기술과 직업준비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아성장과 가정생활에서의 질적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지향성 증진을 위한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거점이라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가정학자의 참여가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업주부 대상의 교육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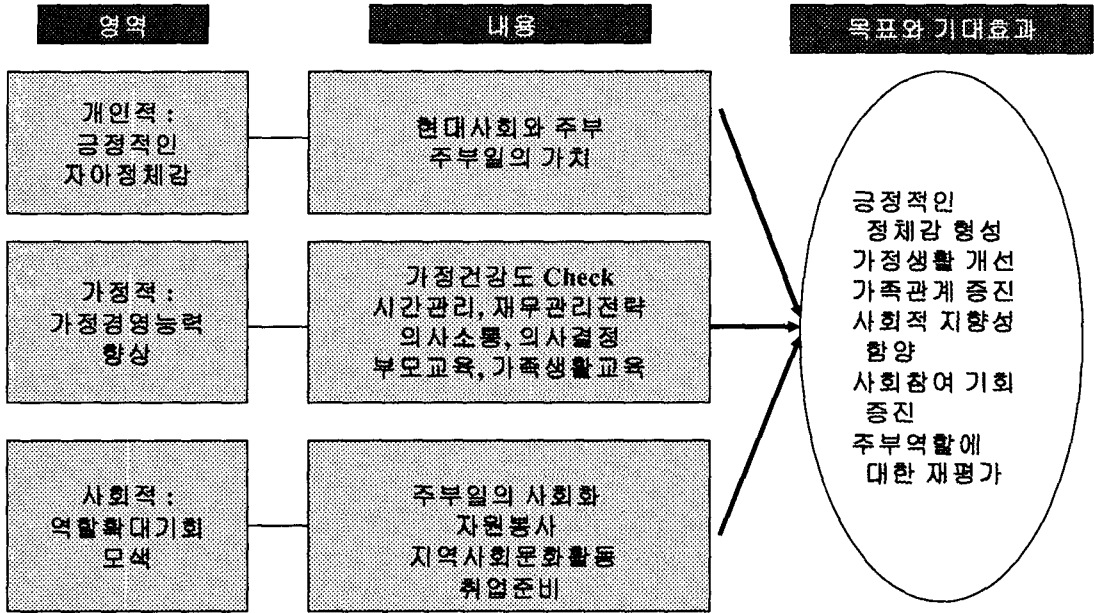
로그램과 관련하여 가정학자 및 가족자원경영 학자들이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를 통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VI.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부교육프로그램

앞에서의 분석 결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주부교육 프로그램은 일단 취미·교양·기술 보다는 가정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주부 개인의 정체감 관련 내용 그리고 사회지향적인 가치관 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 다른 유관기관 주부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술한 바 주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이기영 외, 2003b)에서 주부교육은 주부의 정체감을 세가지 차원 즉 개인-가족-사회의 차원을 고려하여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가정경영능력의 증진, 가족관계 향상, 가정자원의 합리적 관리, 긍정적인 주부정체감 형성, 가정경영경험의 사회화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주부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아실현, 가정적 차원에서의 능력 증진과 사회적 적용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참여 등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뿐 아니라 성격, 시설, 제공방법, 활성화방안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프로그램 개

<그림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부교육프로그램 모형 1 : 개인-가족-사회의 균형을 고려한 접근



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의 제안점 그리고 유관기관 주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주부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세부적으로 개발할 때, 상술한 바와 같이 주부 개인의 정체감을 다루는 영역, 가정생활운영 영역, 사회적 역할 확대 영역 등으로 구분하는 모형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가족-사회의 균형을 고려한 접근에 따른 주부교육 프로그램을 각 영역별 주제와 이를 통한 기대효과 차원에서 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모형에 따른 세부주제와 개요를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모형에 따른 주부교육 프로그램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할 경우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집단의 특성에 따른 내용의 차별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부의 특성을 고려,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가정생활주기, 교육참여동기 등에 따라 프로그램 세부내용에 대한 요구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내용의 차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부들 그리고 운영자, 실무자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획일적이거나 일회적인 교육보다 수준별, 단계별, 기간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기존의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의 주부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프

〈표 6〉 개인-가족-사회의 균형을 고려한 주부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와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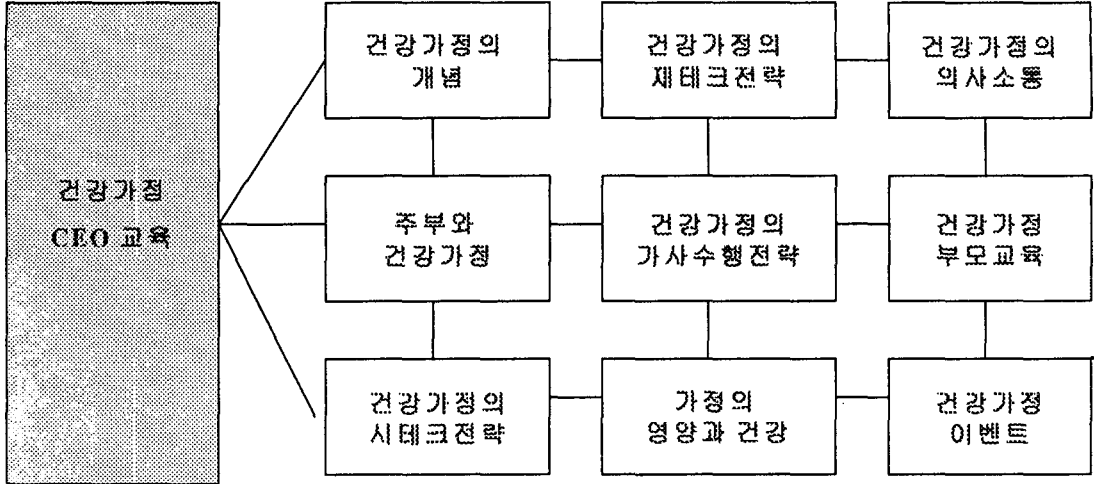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개요와 기대효과
주부의 자아 정체감	현대 사회와 주부	가정과 사회에서 주부의 역할을 검토, 주부가 비난받는 이유, 주부가 하는 일의 가치, 한 개인으로서 주부의 삶 등을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다양한 차원에서 주부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여성, 주부	
	주부와 아줌마	
	주부일의 가치	
가정경영	가정경영과 주부	가족원과 함께 건강한 가정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철학, 운영의 전략, 구체적인 기술 등을 전달하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좋은엄마/좋은아내	
	가정건강도 check	
	시간/재무관리전략	
	의사소통/의사결정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사회적 역할	자원봉사	주부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대안 제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현장과 연계 가능. 또한 주부가 가정에서 하던 역할(양육, 경영, 보육, 보호 등)을 사회로 확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를 취업(학교, 시설)과 연계시킬 수도 있고, 지역사회활동(학교폭력지킴이, 물가감시단, 교통질서 등)과 연계도 가능 -> 지금까지도 주부들은 이러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왔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교육과 현장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조직적인 공동체로 활성화될 수 있음
	주부일의 사회화 1 - 지역사회문화활동	
	주부일의 사회화 2 - 취업준비	

로그 운영을 보다 체계화·조직화한다는 맥락에서, 교육을 단계별로 조정하고 내용과 수준에 따라 일회적 프로그램과 지속적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주부역할의 사회화와 관련하여 주부가 가정에서 하던 역할(양육, 경영, 보육, 보호 등)을 사회로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시설, 기관들과 적극적인 연계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주부역할의 사회화는 취업과 봉사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주부들의 요구도에 따라 인력뱅크를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취업의 경우 학교, 보육/교육시

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가족시설 등에서 관련되는 인력(간병, 상담, 보호, 양육, 지도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인력뱅크에 기록된 주부인력을 연계시킬 수 있다. 또한 경찰서, 보건소, 학교,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자원활동(학교폭력지킴이, 물가감시단, 교통질서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자원하는 주부인력을 매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부들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왔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교육과 현장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조직적인 공동체로 활성화될 수 있으며, 취업의 경우에도 수요자와 공급자 간 공식적인 중개의 역할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함으로써 보다 공

<그림 2> 건강가정 CEO 주부교육프로그램



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부교육에 참여한 주부들을 교육전문가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부교육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운영방안 모색에서 이용자의 경험과 요구도를 보다 확실히 반영할 수 있으며, 참여 주부들의 동기도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육프로그램 후속 서비스로서 보다 자발적이고도 생산적인 주부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부동아리방, 동우회 등을 구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주부집단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문화, 사회문화 형성에 주부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주부들을 통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도 효과를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또 다른 모형을 고려한다면, 건강가정에 초점을 두어 건강한 가정의 경영자로서 주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세부적인 가정생활 영역별로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부가 건강가정 CEO, 즉 전문적인

가정경영자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데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부 개인의 요구도에 따라 세부적인 가정경영의 기술 습득을 보다 필요로 하는 주부들에게는 이러한 모형의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소구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모형을 주제별로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러한 모형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의 주부연구 쟁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부만이 가정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도 또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건강한 가정은 무엇보다 성과 세대에 따른 민주성과 평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건강가정 CEO로서의 주부를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이 갖는 한계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의 개념, 건강가정과 주부 등의 주제에서 이를 충분히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대상을 주부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육프로그램의 홍보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건강가정의 주체는 가족원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주부, 전문가, 운영자 등의 요구도를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방안 구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가정 CEO 교육의 대상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전문가 교육과정은 워크숍으로 운영하고 일반 교육과정은 주기적인 교육으로 운영하며, 일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다음에는 전문가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유관기관들의 주부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된다는 전망을 고려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배출하는 전문인력pool로서 많은 시설,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 전제가 될 것이다.

넷째, 위의 모형 1과 마찬가지로 교육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들은 대상 주부의 가정생활 주기, 시간(회차)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정생활주기별로 주부집단을 유형화 하여, 각 생활주기별로 주부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특정한 주제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 구성시 이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의 프로그램 그리고 주부들의 요구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요구도가 큰 프로그램은 유관기관과 중복되더라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홍보’가 매우 중요한데, 제한된 자원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VII. 제언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주부교육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해 보았다. 선행연구의 고찰, 기존에 개발된 주부교육프로그램 사례 그리고 유관기관의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부교육 프로그램을 두가지 모형으로 구성해 보았다. 첫 번째 모형은 개인-가정-사회의 균형이라는 차원을 강조한 접근으로서, 주부 개인의 자아정체감 형성, 가정경영능력의 향상 그리고 주부역할의 사회화 라는 주제로 구성된다. 두 번째 모형은 건강가정을 보다 부각시켜 주부와 가족구성원을 건강가정 CEO로 보다 전문화시키는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제 본 연구에서 모색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부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되어 후속연구에서 지속되어야 할 점 그리고 특별히 가족자원경영학자들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주부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해야 하며, 잠재력 있는 지역사회 유휴 자원으로 주부집단의 힘을 결속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이 사회에서 ‘주부’의 자리와 주부로 살아감의 조건, 그리고 주부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부연구에 대한 관점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과 이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인 건강

가정사 양성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 교과과정 중 가족자원관리, 여성복지, 가정생활복지, 가사노동 등 기존에 가족자원경영학 연구자들이 담당하는 과목들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심도 깊게 포함되고, 실제 사례연구와 현장 실습 등과 연계되어 전공생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제 건강가정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가계구조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 생활설계, 시간관리, 재무관리, 주부 교육 등)이 보다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어 지역사회 주부와 그 가족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되는 척도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이미 지역사회에서 대주민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관기관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차원을 고려할 때 적절한 홍보도구를 통하여 주민의 마음에 자리잡기 위한 위상정립의 과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 (송혜림, 2004e). 따라서 전문적인 홍보와 이를 위한 도구(리플렛, 캠페인, 팸플렛, 모집기획과 광고 등) 마련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 세 번째 제안과 관련하여 '홍보'는 지금까지 가족자원경영학 차원에서 주력해 오고 있는 '공공가정경영론'의 이론적 체계 중 마케팅관리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동하게 될 전공생들의 양성과 교육에 있어 가족자원경영학의 공공가정경영론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 뿐 아니라 조직관리나 인력개발 등 또 다른 영역에서의 관리전문가를 위한 교육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건강가정 및 건강가정기본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가족자원경영학의 연계

및 기여를 가시화함으로써 학문 내부적으로는 연구와 교육 영역의 내실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가족자원경영학의 학문적 위상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가정복지특별위원회(2003).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교육프로그램 자료집.
- 2) 건강가정실무기획팀(2004).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련 세미나 자료집.
- 3)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추진위원회(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위한 워킹 자료집.
- 4) 경기도개발연구원(200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
- 5) 광주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 6) 구혜령·조영희(2001).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를 통한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의 현장실천성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심포지움 '지역사회에서 가정관리학분야의 현장실천' 자료집.
- 7) 김선미(2004). 30·40대 전업주부의 일상생활 경험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대응양식 :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박사학위논문.
- 8) 김선미 외(2001). 주부의 인적자원개발과 국가지원체계. 대한가정학회 제54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 미래의 여성, 가정 그리고 사회적 지원체계 자료집.
- 9) 김선미 외(2000). 한국사회에서의 주부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 주최 제 1회 학술심포지움 '이 땅에서 주부로 산다는 것은' 자료집.
- 10) 김양희 외(2002). 여성의 문화활동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11) 김재인 외(1995).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

- 발 및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12) 김재인 외(2001). 여성평생교육의 발전배경.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21세기 한·일 여성평생교육의 현황과 발전전망 세미나 자료집.
 - 1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T/F팀(200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
 - 14) 박성정 외(2001). 여성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1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16)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 17)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 18)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2003년도 사업 '우리 가정 더욱 건강하게' 자료집.
 - 19) 성북구 길음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 20) 성북구 장위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 21) 성북구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 22) 성북구청 홈페이지.
 - 23) 송혜림(2000). 우리 사회 주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 주최 제 1회 학술심포지움 '이 땅에서 주부로 산다는 것은' 자료집.
 - 24) 송혜림(2002). 한국 기혼여성들의 정체감과 역할 비중 비교연구 : 모성의 중심성과 한국문화의 특유성. 제 6회 환태평양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세계적 전망에서의 한국학' 자료집.
 - 25) 송혜림(2004a). 시행 앞둔 건강가정기본법 폐기하라니...중앙일보 2004년 10월 4일자.
 - 26) 송혜림(2004b).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실천전략. 인천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 27) 송혜림(2004c). 지방분권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토론. 대구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 28) 송혜림(2004d). 주부, 개인·가족·사회에서 균형찾기. 웅진코웨이 사외보 '간간한 물' 기고.
 - 29) 송혜림(2004e).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과제와 향후전망.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최 심포지엄 <건강가정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 30) 송혜림·장진경(200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상과 운영방안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 2004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31) 이기영 (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소개 및 사회적 기여. 대구카톨릭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 32) 이기영 외(2003a). 지식정보화사회 조성을 위한 주부의 인적자원 개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129-143.
 - 33) 이기영 외(2003b). 주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47-60.
 - 34) 이기영 외(2003c). 주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자·실무자의 요구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23-39.
 - 35) 이기영 외(2004).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원 위탁연구보고서.
 - 36) 이승미 외(1999). 가정복지 실천의 장으로서의 사회복지관 효용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18.
 - 37) 임정빈 외(1997).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63-180.
 - 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3-76.